

연중 제 6 주일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기도서 P. 347 B해
제1독서 (레 위 13, 1-2, 44-46)
제2독서 (고린전 10, 31-11, 1)
복 음 (마 르 1, 40-45)

□ 감 론



하느님께 영광을

성 태 수 신부

「보다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Ad maiorem Dei Gloriam)-이 나시오 성인의 행동 원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가난에 찌들리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느님께 영광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잠깐! 옛날 교리 문답서에 나오는 첫마디 물음을 생각해보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삶의 근본 문제요, 진실하게 사는 인간이라면 인생을 사는 동안 한번쯤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물음의 답을 확신하는가? 인간은 피조물(被造物)이요, 스스로 자신을 만들수 있는 자존자(自存者)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를 만든자의 뜻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 있는 의자의 존재 목적은 의자를 만든 사람의 뜻 그대로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창조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임을 인정하자. 인간 뿐 아니라, 온 우주, 일월성신(日月星辰),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왜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운가? 세상의 재물을 위해, 명예를 위해, 쾌락을 위해, 안일을 위해 하느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인간의 나약성 때문일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원조(原祖)의 교만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한송이의 꽃이 피기 위해서 거기에는 적당한 흙이, 적당한 햇빛이, 적당한 온도가, 적당한 물이 필요하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경건한 신앙 생활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분위기가 되고, 제일 좋은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가 어렵지만 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 48)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먼저 영원하신 그분이,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완전한 행복이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쁨과 긍지로 받아들이자. 오직 하느님안에서만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세상의 어떤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를 바로할 수 있는 성실과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코전 10, 31)
(순창 본당 신부)



염불보다 잣밥?

—신협들의 정기총회에 부쳐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모두 함께 잘살자는 매우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신협은 “一人은 萬人을 위하여, 萬人은 一人을 위하여” 살고 말한다. 이러한 신협운동이 한 외국인 수녀에 의해 한국에 씨가 뿌려지고, 천주교회의 관심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큰 보람으로 느낀다.

조그마한 골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만 하더라도, 으리으리한 회관을 갖춘 조합이 서녘이나 된다. 자산만 하더라도 그렇다.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 장한 일이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신협의 본모습에 비추어 재적질해야 한다. 마침 금년도의 정기총회는 임원개편의 총회이기에 더욱 그렇다. 조합의 대형화에서 오는 잡음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염불보다 잣밥」이어서도 안되고, 「시체는 곳에 독수리」여서는 더욱 안된다.

신용협동조합의 7개원칙-민주적 관리·문화개방·자치·공평·협동·중립·발전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왜 총회때에는 위임장이 그렇게 큰 힘을 갖는가? 조합원들이 대부받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조합을 찾으면서도 회의장이나 교육장에는 왜 잘모이지 않는가?

신협운동의 3대과제를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라고 말한다. 신협운동이 경제운동에서만 성공했다고 말해서 잘못된 표현일까?

서로 믿고 서로 도와 잘살아보자는 신협운동은 분명히 사도직운동이다. 신협운동은 특별히 어려운 처지의 형제들이 평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동에 앞장 서는 지도자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실무자에게서는 직업인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신협운동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

숲정이 산책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인권(人權) 회복을

조 비 오 신부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 인권선언 30들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지상에 맑은 곳에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얼룩진 인간사회는 먼저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다른 상처가 아려오고, 터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왜 타인(他人)의 인권(人權)은 함부로 침해하는가? 대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월권행위를 하고, 자기의 비리와 비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상대방의 인권과 자유와 이익을 짓밟는 경우가 있다. 또는 온당치 못한 체제와 권좌를 지속하고 그 안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반대측을 억압하는가 하면, 인권 유린과 자유의 억압을 항의하는 의(義)롭고 약한 사람들의 정당한 주장을 자구책(自救策)을 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힘으로 힘에 대결하여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자연계 현상보다는, 인간은 이성의 악용에 의한 비인도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정복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악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끼리 같은 사랑의 이름으로 증오를 일삼고 같은 정의란 이름으로 부정을 감행하고 있다. 같은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구속과 유린을 자행하며, 같은 진실이란 허울로 대중을 기만한다. 같은 안보(安保)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같은 친진과 광고를 이용하여 허구(虛構)로 선량한 국민을 현혹할 수도 있는 교활한 이성적 동물이다.

이와같은 교활한 인간들이 득세하는 사회속에 살아야 하는 인간은 스스로가 불행을 임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인간에 의해 비인간화(非人間化) 되어가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학대 받는쪽이 비인간화 되기 전에 학대하는 쪽이 먼저 비인간화 되는 것이다. 단지 자기보다 약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 모두의 수치인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흉악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인간이라는 이유때문에 인간이하로 학대받는 것은 온당치 못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수감자(收監者)에 대한 학대는 방지되어야 하고 종식되어야 한다. 금년 2월에 소집될 유엔 인권 전문위원회는 26명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동 소위원회가 기초한 <수감자 보호원칙>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 <수감자 보호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를 지난 12월의 국제 엠네스티 뉴스레터에서 읽었다.

- 수감자 자신이나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판사에게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
- 수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접견, 법률적 조언을 구할 권리와 접촉할 권리를 가진다.
- 수감자는 학대사실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같은 원칙은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인간양심의 주장인 것이다. 폐쇄되고 단절된 상황에서 수감자에 대한 학대나 멸시, 비인도적 처우는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실마저도 은폐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될 양심수인(良心囚人)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지하」 「양성우」 「송기숙」 「박만철」 「이영희」등을 포함한 수감학생들... 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지... 이분들에게도 유엔 인권위원회의 <수감자 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79년도는 좀더 밝은 인권성취의 해가 되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겠다. 그것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간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광주 엠네스티 운영위원)

※ 전화성금, 감사합니다.

前 평협 지도신부 이수현	5,000원
제2차 사도회임원 연수회 참가 회장들	34,000원
전주의 젊은 신우회원들	5,000원
산하 단체 임원 연수회 참가자들	4,650원
화산 정규암	1,000원

※ 나환자들을 위한 성금

서울 봉천동 본당	50,000원
-----------	---------

빚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도 지정 보일러 시공업체

한국 보일러 설비사

호-스배관, 철관배관, 기름보일러,

시공 및 수리전문

연락처 : 이리 8629 · 군산 3032



新婦가 없는 神父의 선잠

—정결지킴기 보다 순명하기가 더 어려워(?)

김 병 열 신부

우리에게 펍 인상이 깊었던 이태리 영화 <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여주인공인 젤 소미나는 꼭마단의 주인이며 삼륜차를 몰고 다니며 돈을 버는 짬짜노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짬짜노는 어느날 수녀원에서 잠을 자다가 삼륜차를 몰고 조용히 떠나버린다. (아마 서양의 수녀원에는 여행자들이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는 모양이다.) 짬짜노는 자기와 연령차이 등 몇가지 문제들을 놓고 젤소미나와의 관계가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고 여겨 그녀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다. 아침에 잠이 깨 젤소미나는, 마땅히 자기 옆에 있어야 할 짬짜노가 없는 것을 알고 울음을 참지 못한다. 이것을 본 원장수녀는 “마땅히 주님께 바쳐드려야 할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정원에서 있는 한그루의 나무와 풀 한포기에 빼앗길까 봐서, 우리들은 3개월에 한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고 젤소미나에게 위로의 말을 준다.

우리네 신부들은 한 본당에서 3년·4년·5년이 지나면 다른 본당으로 가라는 인사이동의 명을 주교님한테 받는다. 어떤 교우들은 잡담으로 차리는 제삿상에 올리기 위해 주교님의 인사발령 발표에 귀를 쫓긋이 세우겠지만, 명을 받는 신부는 시집가는 신부(新婦)의 심정 못지않게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더구나 서품받고 처음으로 본당을 맡는 신부는 피흘림이 없는 치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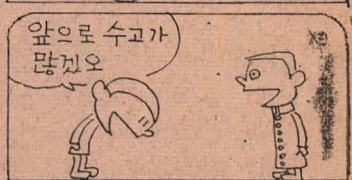
어떤 일이고 소설이나 영화의 즐거리 같지는 않다. 더구나 젤소미나를 위로하던 원장수녀의 팔과 여행되는 때도 적지 않다.

두 아름도 더 되는, 묵묵히 서있는 은행나무.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부끄러워 살짝 숨어버리는 코흘리개 철수와 영희. 장날이면, 수십명의 사람들을 제치고 겨우 버스에 올라간 윤철이네 엄마가 자리잡아 놓았다고 소리치던 일. 용하고 착하기만한 요십이네 아빠가 교무금을 미쳐 못내서, 골목에서라도 마주칠양이면 죄(?)스러워 고개를 땅에 떨어트린 일. 성당에서 떠든다고 한대 맞고 울던 복남이. 미사참례도 안하고 하필이면 주일날에 잠을 팔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시던 노(老)회장님들. 등산규율을 어긴다고 영덩이를 두대씩 때리던 일. 성당 유리를 깨다고 공을 차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또 유리창 깨지는 소리. 부활대축일 행사때 산불이 나서 꺼주던 일. 불을 끄면서도 타 죽을가봐 질겁을 하던 아이들. 수염이 꼬스라진 산지기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일. ... 이런일 저런일이 담겨진 낡은 필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옛정을 송두리째 끊고 새 부임지에 가라”시던 선배 신부님들의 충고말씀은 아랑곳없고, 새 부임지의 사목걱정이 파도처럼 엄습한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취를 것이 없노라”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잠을 이루려 하지만, 신부(新婦)가 없는 신부(神父)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인사발령 첫날밤을 선잠으로 지새운다.

아, 순명이란 의지적인 것이어서 정결을 지키기 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
(전동 주임신부, 前 수류주임)

요십이 (289) 김병열



대학병원의 아가다 회원님들

제임기간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치료해 주신 노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9. 2. 11

김 병 열 신부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선(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옥교열

☎ ③ 3 2 5 2

(축) 개 업

분 육 약 국

서부 정류소 앞. 전화 3337

약사 육 안드레아(진수)

※육약국은 교우를 위한 약국입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밖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맛을 사세요

새 별 의 상 실

서 남 숙(세실리아)

전주시 서서학동 194-5
(서학동 파출소앞 구이가는 쪽)

2-0900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선사합니다□

파 티 마 의 상 실

최 춘 자(로스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⑥ 6 2 1 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제 1 차 공소 지도자 연수회...2월 15<목> 오후 2시~17<토> 정오, 가톨릭 센터
 ① 대상...각 공소회장 또는 지도자 1명씩(각 공소에 1명씩), ② 준비물...필기도구, 성서, ③ 회비...1인당 4천원씩(단, 고창·금산·남원·순창·무주·장계·장수는 3,500원씩)
- 농민회 총회 및 연수회...2월 20<화>~21<수>, 가톨릭 센터
- 제 6 차 여성 꾸르실로...2월 24<토>~27<화>, 가톨릭 센터
 ① 자격...만 30세이상의 기혼 여교우로 고등학교 졸업한 자, 영세한 후 3년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하며 신심이 두터운 자, ② 회비...15,000원
 ※ 참가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얻어 2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람.
- 프란치스코 재승 3회 전북지부 월례회...2월 17일<토> 오후 2시, 노송성당
 ※ 각 형제회는 78년도 중요사업 보고서 및 79년 1월 사업보고서, 79년도 중요사업계획서 지참 바람
- J. O. C 광주 관구훈련회
 일시: 1979. 2. 17~18(토요일 오후 6시 30분~주일 오후 4시)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대상: 광주·대전·전주교구 회원, 회비: 3,200원(1,200원은 교구보조)
- 국제 사면(앰네스티) 강연회...12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람(강사...백기완 선생)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복
 사도 회장 이복석

- 정태현 신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 꾸리아: 11일<일> 오후 2시
-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을 구역장 반장님들은 잘 분배 하세요
- 79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202,717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김성복

- 설무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 반상회 일정안내: 중노 2가·목련반·장미반 13<화> 중노 1가·체송화반·진달래반 14<수>, 중노1가·개나리반·맨드라미반 15<목>, 백일홍반 16<금>
- 레지오 마리에 간부모임: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각 뿌리시디움 간부님은 전원 참석하세요
- 친목 웃음들이: 오늘 저녁미사후 사제관에서 자도회대, 어머니 합창단, 우승팀에게 상품시상 및 다과회 양단체의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축! 혼인미사: 18일<일요일> 12시 신랑-최상림(누가)군, 신부-오안례(아베스)양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상

- 예비자 교리안내: 2월 11일부터 접수
- 주일학교 개학: 2월 11일 오후 2시 교리, 3시미사 귀염동이를 교리반으로 보내주세요
- 교우님의 많은 기도로 본당신부님 무사히 성서 연수회 마치고 오셨읍니다
- 신입학생 회장: 박성수 수고 많이 하세요
- 보좌신부님 환영식: 오늘 공식미사후
- 미사때에 성서와 기도서 그리고 성가집을...
- 축! 결혼: 신랑-노대원(요한), 신부-김영란 11일 12시

□ 지난주 봉헌금: 35,705원, 교무금: 131,67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박인식 형제대)
- 애령회 총회: 2월 25일 공식미사후, 회원 전원 참석 바람
- 복자신용조합 제 3 차 정기총회: 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전 조합원 빠짐없이 참석바람(인장과 통장지참)
- 보좌신부 사제관 비품비 김현경 (100,000원), 이호재 (84,000원 카네티), 장동주 (50,000원), 박홍기 (30,000원), 삼희 (30,000원), 익명 (20,000원), 박성기 (10,000), 김종술 (10,000원), 최용구 (3,000원), 홍성금 (3,000원), 이복주 (2,000원), 송글라라 (1,000원) 이충원 (50,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7,50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 선교주일: 10시 미사후 L.M 간부회
- 주일학교 졸업식: 18일 10시미사
- 애령회: 회장-김환용, 부회장-조동근, 총무-강기호, 재경-박형식, 행동대원-강순옥, 박종갑, 김명숙, 윤성순
- 학생회 임원: 회장-강진석, 부회장-이현숙, 유영대, 이정훈, 총무-조용순, 서기-김진희
- 갑사: 본당 마이크 일일 기증(20만원정) 강남춘희장
- 성령 세미나: 14일 밤 7시(시간연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1,875원

(윤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첫 영성체 교리: 토요일·주일 오후 2시
- 예비자 교리: 매주 화·수 오전 10시
- 어머니 성가연습: 매주 <목> 오후 2시
- 사도회 임원개편: 재경분과위원장 박해근 면-김영채 후임, 봉사분과위원장 전준선 면-노제두 후임
- 성당 신축기금 신입 빠지신 형제들께서는 오늘 주일 중 신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꾸르실로: 접수-2월 20일까지, 수강기간 2월 24~28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145,30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 ※ 축! 환영: 본당 김병엽 신부, 보좌 김기수 신부 축하식: 주일 공식미사후
- 자모회: 10시 미사후
 - 장우회: 저녁 미사후
 - 사도회: 저녁미사후(상임, 반회장)
 - 성자공개 Cell(오후 2시사제관 2층)

□ 지난주 봉헌금: 222,250원 교무금: 116,60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성령세미나: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 중·고학생 미사 및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부모님들의 관심을 보임시다
- 어린이 미사: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어린이들 모두 나오세요
- 공식미사후 부녀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합시다
- 2월 13일<화> 가정방문: 일정없이 방문합니다. 또한 구역미사가 있습니다
- 파티마의 모후 Pr 주회는 성령세미나 관제로 수요일 저녁미사후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직 교무금 신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신입 해주세요
- 1월말 결산: 수입-508,233원, 지출-456,223원, 잔액-52,010원

□ 지난주 봉헌금: 67,130원